

■ 2025년도 지역예술도약지원(공연예술) 연극/뮤지컬 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지역예술도약지원(공연예술) 연극/뮤지컬 분야
- 회의일시 : 2025년 5월 12일(월) 10:00~17:00 / 2025년 5월 13일(화) 13:00~18: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2층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공재민, 김아람, 이영숙, 이지은, 임정혁

먼저 2025년 지역예술도약지원(공연예술) 연극/뮤지컬 분야에 신청해주신 모든 공연 단체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25년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은 지역 내 기초예술 우수작품 및 활동을 후속·연계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초예술의 성장과 활성화를 통한 국민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4개 광역문화재단에서 추진한 공연예술 특화(집중지원) 사업의 선정 이력이 있는 단체의 성과를 연계지원하여 작품의 개선 및 레퍼토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극/뮤지컬 분야에는 총 33개의 단체가 지원신청 했으며, 이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5개 단체를 제외한 28개 단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심의를 통해 16개 단체를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의는 크게 신청 작품의 작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편성의 타당성, 작품의 기대효과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기존에 발표된 작품 중 우수작품을 선별하여 더 많은 관객에게 소개될 수 있는 작품들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지역에서 관객 개발 및 지역 주민 문화향유 활성화를 신장시키고, 타 지역으로도 발전시켜 공연예술 대중화에 충분히 이바지 될 수 있는가?', '예산이 작품의 보안 및 추가 개발과 인력비 등 타당하게 편성되었는가?' 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였습니다.

전체 지원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존의 선정하려는 단체의 수보다 더 많은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배분하였으며, 많은 지역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 안배와 장르별 안배에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로 심의를 한다고는 해도 어쩌면 심의위원들의 관점이 다르기에 주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었다는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없으나 몇몇 작품들의 구체적이지 않고 다소 섬세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나 작품의 실현가능성 또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에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으며 작품의 예술적 수준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업 취지에 맞게 작품의 개발보다는 작품의 보완으로 더더욱 질 좋은 작품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우수작품들을 선정하여 계속해서 연계지원함으로써 기초예술의 성장과 활성화를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하신 작품들의 수준이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술적 가치와 질 높은 수준이기에 심의에 있어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단체별로 작품의 주제와 다양성 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으며 그 중에 개선의 여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작품, 그리고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도 있었지만 많은 관객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얼마나 더 기여할 수 있는가가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신청 작품들에 대한 향후 유통 및 확산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향후 지역 예술현장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디만, 창작 예술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충실히 사업을 운영해오고 본 사업에서 또한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신 많은 단체에게 대한민국 공연문화예술계의 희망과 믿음을 느끼게 된 점 등 머리 숙여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서 더 없는 힘듦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현장의 고민은 더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정되신 단체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일반 관객 개발 및 소통강화, 지역사회 간의 협력 강화 등 다방면으로 애써주시기 바라고, 동시대의 아주 작은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작업으로 관객과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선정되신 단체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선정되지 못한 단체는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저희 심의위원들이 각자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서일 수도 있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사업에 관심갖고 지원해주신 모든 단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위원 일동